

英才教育研究

Journal of Gifted/Talented Education

2003. Vol. 13. No1, pp. 65~80

## 부모의 지각에 따른 유아영재의 비동시적 발달특성

윤형주 (CBS 영재교육학술원 연구원)

윤여홍 (CBS 영재교육학술원 소장)

### 요 약

본 연구는 부모가 지각한 유아영재의 각 발달특성의 수준을 알아보고, 발달 특성 영역간 발달수준 차이가 있는지를 알아보고자 만 30개월부터 6세 10개월까지 유아영재교육을 받고 있는 145명 유아영재를 대상으로 하여 30개월부터 47개월까지, 48개월부터 60개월까지, 60개월부터 6세 10개월까지를 유아 1,2,3집단으로 세분화하여 살펴보았다.

연구결과, 첫째, 유아영재들은 모든 발달특성에서의 발달수준을 살펴본 결과, 모든 연령 대에서 보통 수준이상으로 발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러 발달특성 중 언어이해 및 표현능력이 가장 높은 수준으로 발달하고 있었으며, 지적능력, 정서적 성숙함, 손과-눈의 협응력 및 손을 이용한 활동능력, 도덕성, 자기행동조절능력, 감정 조절 및 통제능력, 신체발달, 사회성, 또래관계형성능력, 리더십 순으로 발달하고 있었다.

둘째, 지적 능력과 언어이해 및 표현능력과 같은 인지적인 발달은 모든 연령 대에서 사회·신체발달 및 감정조절 및 통제능력에 비하여 빠르게 발달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연령이 어릴수록 신체발달과 자기행동조절능력, 감정조절 및 통제능력간의 발달차이가 더 나타나고 있었으며, 연령이 높아질수록 언어이해 및 표현능력과 손을 이용한 활동능력간의 발달차이가 더 커짐을 알 수 있었다. 그리고 사회성, 또래관계형성능력과 같은 사회성 발달도 자기행동조절과 감정조절 및 통제능력발달 수준에 못 미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또한 감정조절 능력 및 통제능력에 비해 리더십은 발달하지 않고 있었으며, 도덕성은 자기행동조절능력 발달수준에 못 미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유아 단계의 영재아동을 대상으로 하여 그들의 발달특성을 고려한 교육 프로그램뿐만 아니라, 영재아들이 여러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는 부모와 교사들에게 기초자료가 되었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있다

주요어: 유아영재, 비동시적 발달, 부모의 지각.

## I. 서론

우리 나라 영재교육진흥법에는 영재는 재능이 뛰어난 사람으로서 타고난 잠재력을 개발하기 위하여 특별한 교육을 필요로 하는 자라고 정의를 내리고 있다(영재교육진흥법, 1999, 제2조 2항). 21세기 영재교육은 국가적인 입장에서는 우수한 인재양성을 목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아동 개인적인 입장에서는 영재아의 학습부진 현상을 미연에 방지할 뿐 아니라 영재아로 하여금 지적으로 또한 정서적으로 건강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한다는 필요성을 지니고 있다.

영재전문가들은 “영재교육이 왜 필요한가?”라는 문제보다 이제는 “어떻게 영재교육을 해나갈 것인가?”(김언주, 2001)에 중요성을 더 부여하고 있다. 영재교육의 대상자인 영재의 특성에 관한 물음은 영재의 판별과 선발의 기초가 되고 영재교육 프로그램의 방향을 제시해 줄뿐만 아니라 영재아의 지도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영재아동의 특성으로 여러 학자들의 연구결과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다. 공통적으로 영재아동은 기억력과 관찰력이 뛰어나며, 학습속도가 빠르며, 반성적, 합리적, 분석적, 창의적인 사고를 하고, 비충동적, 비사교적이며 정서적으로 안정되어 있다. 또한 호기심을 갖고 의문을 해결하려고 끝까지 노력한다. 환경에 대해 민감하게 반응하며 자신은 물론 타인에 대해서도 비판적이며, 수준 높은 언어적 유머 감각이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 또 개인적 및 세계적 수준에서의 정의감을 갖으며 여러 분야에서 탁월한 능력을 지닌 아동도 있으며, 지도력을 겸비한 영재도 많이 있다.

그러나 영재아동은 이러한 긍정적인 특성 외에 비동시성(asynchrony)의 특성으로 인한 부정적인 문제들도 있다. 비동시성(asynchrony)이란 지적, 신체적, 사회적 그리고 정서적 발달 사이의 불일치를 말한다. 즉, 영재아동의 지적성장, 정서적 성장, 신체적 성장이 동시에 이루어지지 않고 서로 다른 발달수준으로, 서로 다른 속도로 발달하게 되어 아동 안에서 내적 불일치를 일으키는 것을 의미한다. 여기에는 지적, 정신운동성, 언어 및 정서 발달에서의 서로 다른 발달비율에 의한 내적 불일치와 영재아동의 정신발달 속도가 또래 아동들과 다른 사회적 불일치로 구분할 수 있다(Terrassier, 1985).

영재의 비동시적 발달은 영역별 발달의 차이의 정도에 따라 정서, 행동 문제로 이어지기도 한다. Morelock(1996)과 Silverman(1993)은 영재의 비동시성 발달 특징은 영재아들이 사회·정서적으로 어려움에 처해 있을 가능성을 갖게 만든다고 언급하고 있다. 모든 아동들의 목표는 아동들의 지적인 능력의 발휘와 함께 건강하고 균형있는 삶을 이루는 것이다. 그러나 영재아들은 능력의 탁월함으로 인하여 자신이 속할 수 있는 곳을 형성하기 위해 다른 사람을 찾는 것이 어려울 뿐만 아니라(Silverman,

1995), 영재아동은 일반아동과 다르게 학습하고 신경심리학적으로도 다르게 기능하고 인지적 자극에 대해서도 다른 수준과 형태에 대한 특별한 요구를 필요로 한다. 반면에 아직까지 우리 나라 영재교육은 초등학교 고학년 이상의 아동을 대상으로 인지적인 측면에 치중하고 있는 실정이다.

비동시성 발달은 특히 영재 중에서 나이 어린 유아영재에게 더욱 문제가 될 수 있다. 어린 시기는 어느 때보다도 잠재력의 개발이 활발하게 일어나는 때로서 빠른 속도로 발달하고 있는 과정에서 심리적 특성들이 안정되지 않은 상태에 있기 때문에, 지적능력과 정서, 사회, 신체 발달간의 불일치로 인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가능성이 많아질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영재로서의 잠재력을 가지고 있는 유아영재를 대상으로 하여 각 발달특성의 수준을 알아보고, 영역별 발달특성 간에 발달수준의 차이를 살펴봄으로써 비동시성 발달의 양상이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보고자 한다. 또한 이를 바탕으로 영재아동들의 지적인 발달뿐만 아니라 사회적, 정서적인 발달차이를 이해하여 유아영재를 올바르게 지도하고 교육하기 위한 기초 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이상의 연구목적을 토대로 본 연구에서 설정한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1. 유아영재의 영역별 발달특성은 어떠한가?
2. 유아영재의 영역별 발달특성 간에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가?(비동시적 발달의 양상이 있는가?)
3. 유아영재의 비동시성 발달의 양상이 연령별 차이가 있는가?

## II. 이론적 배경

영재에 대한 학문적 연구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이래 영재의 정의는 다양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세계 여러 학자들의 영재성에 대한 정의는 다소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누구나 '뛰어난 영재성'을 반드시 포함시킨다는 점과 '사회적으로 가치있는 능력 중에서 어느 하나라도 뛰어나면' 영재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는 점을 공통점으로 들 수 있다.

영재성의 다양한 영역에 가장 포괄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정의로 Renzulli의 정의를 들 수 있다. Renzulli와 Reis(2000)는 영재란 높은 창의성과 높은 과제집착력 및 평균 이상의 지적능력을 지니고 있으면서 각 특성이 적어도 85%tile 이상이어야 하며, 그 중 한 요인에서는 적어도 백분위 98%tile이상에 속하는 사람이라고 정의하였다.

전통적으로 영재의 특성으로는 개인 지능 검사에 의해 측정된 지능지수로 결정하는 경향이 있었으며, 최근 영재 아동에 대한 연구들에서는 영재를 지능지수(IQ), 창의성, 특출난 재능, 정보처리능력, 비지적인 특성 등이 강조되었다. Renzulli도 영재의 한 요소로서 중요하게 포함시키고 있는 것이 바로 과제집착력과 같은 비지적 특성 - 바로 정의적인 특성들이다.

영재는 여러 특성들을 지니고 있다. 여러 학자들의 연구결과를 종합적으로 정리하여 Tuttle & Becker(1983)가 제시한 영재의 특성을 살펴보면, 영재아는 인지적인 측면으로 기억력과 관찰력이 뛰어나며, 창의적인 사고, 빠른 이해력, 광범위한 지식, 조속한 말배움 및 신체발달, 나이에 어울리지 않는 특이한 단어의 이용이 있으며, 같은 또래아동에 비하여 일반적으로 추상적인 과제에 흥미를 나타내며, 풍부한 어휘력, 빠른 학습속도와 같은 특징을 보이며, 정의적인 측면으로는 높은 흥미와 호기심, 독립적, 자율적, 비충동적, 내향적, 비사교적, 정서적인 안정감 등과 같은 특징을 보인다.

Lewis & Louis(1991)은 영재유아의 특징으로 언어사용, 기억력, 추상적 사고, 호기심과 운동 능력 등을 들고 있으며, Terman & Oden(1947)이 1,528명의 IQ가 높은 영재들을 대상으로 밝혀낸 바에 의하면, 영재들은 신체발달에 있어서 보통 아이들보다 앞서서 공부하기를 좋아하며, 독해, 문법, 과학, 수학, 예술 분야에서 높은 성적을 받고 책을 읽을 때 보통 아이들보다 속도가 빠르고, 더 많이 읽고, 수준이 높은 책을 읽으며, 취미가 다양하고, 수집도 많이 하며 동년배보다 최소한 1년 정도 앞서간다고 하였다. Martinson(1961)과 Hollingworth(1942)도 역시 영재들은 어릴 때부터 선과악, 옳고 그름, 정의와 불의 등에 관심을 가지고 있고 영재가 도덕적 윤리적 행동에 있어서도 보통 사람보다 뛰어나다고 발표했다. Walberg(1982)는 지능이 높은 영재를 대상으로 연구한 결과 집중과 끈기가 있으며, 낙천적이고, 동료로부터 인기가 있고, 윤리적이고 감수성이 예민함을 지적했다. 그리고 Terman연구 결과와 같이 이들 중 80%가 학교생활을 성공적으로 해낸 것으로 기록했다(조석희, 오영주, 임선하, 1996. 재인용)

그러나 영재아들의 긍정적인 특성 외에도 동시에 나타날 수 있는 부정적인 특성이 있다. Clark(2002)는 영재아들은 지나친 산만함, 또는 과도한 행동, 과도한 경쟁, 학습에서의 위축, 무관심, 부주의 공상, 일상적인 과제에 쉽게 싫증을 느낀다고 하였다. 윤여홍(1996)의 연구에 의하면, 우리 나라 유아 및 아동 영재에게서도 정서 및 행동적인 문제가 있음을 보고하고 있다. 그 내용으로는 “행동적인 문제”로는 반항한다, 말을 잘 안 듣는다, 공격적인 행동을 한다, 규칙을 준수하지 않는다, 책임감이 부족하다, 일상생활에서의 행동이 매우 느리다, 정리정돈을 잘 못한다, 주의를 끄는 행동을 보인다, 자기가 좋아하는 것을 집중을 잘 하는데 그 외는 (일상적인 일을 포함하여) 산만하다(편협한 주의집중) 등이 있다. “정서적 반응”에 포함되는 것으로는 지나치게 화를

낸다, 짜증이나 신경질을 많다, 징징거리거나 떼를 쓴다, 감정폭발이 잘 일어난다, 침울해 한다, 소리를 지른다, 잘 운다, 걱정이나 근심이 많다 등이 있다. “학교 및 학습의 문제”로는 학교생활에 흥미, 의욕이 없다, 수업에 실증을 내고 수업을 제대로 안 한다, 성적이 하위권이다, 글씨가 엉망이다, 손으로 작업하는 것을 싫어한다 등이 있다. “상상과 자기개념에서 호소하는 문제”로는 남에게 인정받으려는 욕구가 지나치게 강하다, 딴 생각을 많이 하고 멍하다, 학습이나 성취동기가 부족하다 등이 있다. “대인관계, 사회성에서의 문제”로는 또래에게 공격적인 행동에 적절히 대응하지 못한다, 사회적 기술이 부족하다, 사회적 상황에서 판단과 이에 따른 행동이 느리다 등이 포함된다. “성격적인 문제”로 고집이 세고 자기주장이 강하다, 인내심이 부족하다, 의존적이고 의타심이 많다 등의 내용으로 상담을 요청한다고 한다.

이러한 영재에게서 나타나는 문제들은 영재의 비동시성 발달로 인한 어려움일 가능성이 크다. 특히 학업적 영재의 경우, 영재아동의 지적 발달은 또래아동들보다 상대적으로 2-3년 정도 앞서 있는 높은 인지적인 능력과 질적으로 다른 형태의 높은 내적인 경험과 자극을 표출하므로써, 영역별 발달이 서로 다르게 나타나는 비동시적 발달을 할 가능성이 높다.

예를 들어, 높은 지적 능력을 지닌 아동은 자신이 지닌 지적 능력과는 맞지 않는 난이도가 낮은 과제에서는 쉽게 실증을 내고 지루해하는데, 이러한 경우 산만한 행동이나 학습부진과 같은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Gorden(1990)도 높은 지적능력을 가진 많은 학생들이 충동성, 과잉행동과 지속적인 결함과 같은 문제로 의뢰되고 있다고 보고했는데, 주의의 문제로 의뢰되는 사례에 대해서 영재아동이 일반학습에서 적응하기 어려울 수 있으며, 이런 적응의 어려움은 특히 주의집중의 문제로 오인될 수 있다고 하였다(Baum, Olenchak, Owen, 1998).

우리나라 유아영재의 특성을 밝힌 윤여홍(2002)의 연구 결과도 거의 대부분 지적인 특성에 국한된 경향이 있었으므로, 유아 영재의 경우, 정서 및 행동 특성들은 지적 특성보다 현저히 낮아 지적 특성과의 비동시성 발달을 추측케 한다.

Terassier(1985)는 영재아동에게 비동시성(asynchrony)이 나타난다고 하였다. 즉, 영재아동의 지적성장, 정서적 성장, 신체적 성장이 동시에 이루어지지 않고 서로 다른 발달수준으로, 서로 다른 속도로 발달하게 되어 아동 안에서 내적 불일치를 일으킨다고 하였다. Webb(1993)은 영재의 지적 기능은 다른 정서, 사회 및 신체 영역에 비하여 빠르게 발달하기 때문에 소근육 운동발달이 뒤쳐지고 판단력이나 정서적 성숙이 지적 수준에 못 미치게 되어, 부모들도 영재아동을 지나치게 어른으로 취급하는 오류를 범하여 심각한 스트레스를 줄 수 있다고 하였다.

그러므로 영재아동이 비동시성 발달로 인하여 겪을 수 있는 어려움을 잘 극복하도록 도와주기 위해서도 부모와 교사들이 유아영재의 발달특성을 제대로 이해할 수 있

는 자료가 필요하다.

이에 본 연구는 우리나라 유아영재에서 영역별 발달특성을 통해 비동시적인 발달이 일어나는지, 어느 발달특성 간에서 비동시성 발달이 나타나는지, 또한 이러한 발달양상이 연령에 따라 어떻게 변화하는지 구체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가하도록 구성되어 있다. 이 검사는 창의성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연구되어지고 있는 연상능력, 확산적 사고 및 상상력을 측정하는 것을 주목적으로 하고 있고, 또한 많은 부분이 Torrance TTCT검사(1998)와 유사한 특징을 가지고 있다.

조석희 등(1997)의 과학영재판별도구개발연구(II)에서는 과학영재의 판별을 위하여 창의적인 문제해결력을 측정하는 검사지를 개발하였다. 이 검사지의 하위요소는 크게 논리적 사고, 논리적 사고+확산적 사고, 확산적 사고 기능을 활용하여 과학 탐구과정 및 탐구요소와 관련된 문항을 개발·제시하였다. 이 검사지는 과학에 대한 문제해결력을 측정하는 것으로서 본 연구에서 개발하고자 하는 과학에 대한 창의력 검사와 유사한 부분이 많지만 직접 같은 내용의 것은 아니다.

### Ⅲ. 연구방법

#### 1. 연구대상

본 연구는 현재 유아영재교육을 받고 있는 만 30개월부터 6세 10개월까지의 145명 유아 영재아동을 대상으로 하였다. 본 연구 대상인 유아 영재를 크게 3단계로 구분하면 30개월부터 47개월까지를 유아 1단계로, 48개월부터 60개월까지는 유아 2단계로, 60개월 이후부터 현재 초등학교 미취학 아동까지를 유아 3단계로 구분하였다. 따라서 전체 연구대상은 유아 1집단, 유아 2집단 및 유아 3집단의 세 집단으로 세분화하였다. 유아 1집단의 피험자 수는 38명이며, 유아 2집단은 56명, 유아 3집단은 51명으로 구성되었다. 유아집단의 구분은 현재 유아영재교육을 받고 있는 기관의 교육 시스템과 관련하여 대략 1년 정도의 간격을 두고 연령을 세분화하였다.

전체 145명 피험자의 평균 교육 기간은 11.64개월이며, 유아 1집단의 교육기간은 5.18개월, 유아 2집단의 교육기간은 12.21개월, 유아 3집단의 교육기간은 15.82개월이었다. 남·녀의 비율은 남자아동이 72명, 여자 아동이 67명, 무응답 6명 정도로서, 남·녀의 인원수에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표 1 참조).

<표 1> 집단별 연구대상의 인원수, 성별 및 교육기간

집 단	인원수(명)	남	녀	무응답	평균 교육기간
유아 1집단 (30개월~48개월)	38	14	22	2	5.2개월
유아 2집단 (48개월~60개월)	56	58	45	4	12.2개월
유아 3집단 (60개월~취학전)	51				15.8개월
합 계	145명	72명	67명	6명	11.6개월

연구대상 유아영재의 판별은 전문 심리 검사자에 의하여 이루어졌으며, 유아영재판별은 K-ABC, CDS-I, K-WPPSI, 창의적 문제해결력검사(사고력, 수학, 과학, 언어, 사회영역) 및 비언어성 창의성검사를 사용하여 전국 기준에서 상위 3%이내에 드는 아동을 지적 능력, 창의성, 과제집착력이 우수한 지적 영재아동(Intellectually gifted, Academic gifted)으로 선발하였다. 본 연구에 참여한 유아는 이미 영재판별을 받고 입학하여 수업을 하고 있는 영·유아단계의 아동들 부모 중에서 설문에 답한 총 145명이 본 연구대상으로 선정되었다.

## 2. 측정 도구 및 자료 분석

본 연구에서 사용한 설문지는 인적사항과 11개 항목의 발달특성을 부모가 읽고 표기하도록 이루어졌다. 본 연구를 위해 제시된 발달영역은 신체발달, 손-눈의 협응력 및 손을 이용한 활동 능력의 발달, 지적능력의 발달, 언어 이해 및 표현능력의 발달, 정서적 성숙함의 발달, 사회성 발달, 또래관계형성 능력의 발달, 도덕성의 발달, 리더십의 발달, 자기 행동조절 능력의 발달, 감정조절 및 통제능력의 발달로 총 11개의 항목으로 나누었으며, 각 발달수준은 '매우 부족'의 1점에서부터 '매우 발달함'의 5점까지 5점 척도로 구분하였다. 본 연구에서 나타난 척도의 Cronbach alpha계수는 .73이었다.

본 연구에서 수집된 자료는 SPSS WIN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빈도, 평균, 표준편차, t검정으로 분석하였다.

### Ⅲ. 연구결과 및 해석

#### 1. 유아영재의 발달특성의 일반적 경향

유아영재의 발달특성의 전반적인 경향을 살펴보기 위해 <표 2>에서 각 발달특성 별로 평균과 표준편차로 제시하였다. <표 2>에서 보듯이, 전반적으로 모든 발달특성에서 보통 수준이상으로 발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적능력, 정서적 성숙함, 손-눈의 협응력 및 손을 이용한 활동능력, 도덕성은 다소 발달한 것으로 나타났고, 자기행동조절능력, 감정조절 및 통제능력, 신체발달, 사회성, 또래관계형성능력, 리더십 발달은 보통 수준으로 발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중 언어 이해 및 표현 능력이 가장 높게 발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M=4.41, SD=.71). 그 다음으로 지적능력, 정서적 성숙함, 손-눈의 협응력 및 손을 이용한 활동능력, 도덕성, 자기행동

<표 2> 집단별 유아영재의 발달특성

N=145

	신체발달	손-눈의 협응력	지적능력	언어이해, 표현	정서적 성숙감	사회성	또래관계 형성	도덕성	리더십	자기행동 조절	감정조절 및 통제
	M(SD)	M(SD)	M(SD)	M(SD)	M(SD)	M(SD)	M(SD)	M(SD)	M(SD)	M(SD)	M(SD)
유아 1 (n=38)	3.50(1.06)	4.11(1.06)	4.29(0.65)	4.34(0.81)	4.18(0.73)	3.55(1.13)	3.61(1.18)	4.00(0.83)	3.63(0.94)	4.00(0.84)	3.89(0.83)
유아 2 (n=56)	3.68(1.06)	4.16(0.89)	4.38(0.52)	4.38(0.70)	4.18(0.77)	3.54(0.93)	3.55(0.95)	4.04(0.83)	3.45(0.91)	3.82(0.94)	3.61(0.95)
유아 3 (n=51)	3.59(0.98)	4.14(0.75)	4.33(0.59)	4.49(0.64)	4.12(0.71)	3.61(0.89)	3.49(1.07)	4.24(0.74)	3.39(0.98)	3.94(0.81)	3.96(0.79)
전 체	3.60(1.03)	4.14(0.89)	4.34(0.58)	4.41(0.71)	4.16(0.73)	3.57(0.97)	3.54(1.05)	4.09(0.80)	3.47(0.94)	3.91(0.87)	3.81(0.8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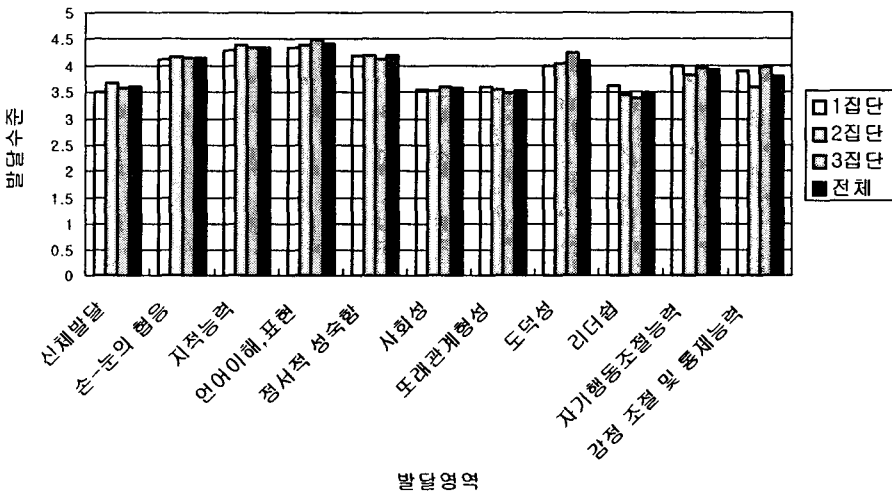
조절능력, 감정조절 및 통제능력, 신체발달, 사회성, 또래관계형성능력, 리더십 순으로 발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별로 발달특성의 전반적인 경향을 살펴본 결과, 모든 연령대에서 언어이해 및 표현능력과

지적능력이 가장 높게 발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아 1집단은 지적능력, 정서적 성숙함, 손눈의 협응력 및 손을 이용한 활동능력, 도덕성, 자기행동조절능력, 감정조절 및 통제능력, 리더십, 또래관계형성, 신체발달 순으로 발달하고 있는 것으로 나



타났다. 그리고 유아 2집단은 지적능력, 정서적 성숙함, 손-눈의 협응력 및 손을 이용한 활동능력, 도덕성, 자기행동조절능력, 신체발달, 감정조절 및 통제능력, 또래관계형성, 사회성, 리더십 순으로 발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아 3집단은 지적능력, 도덕성, 손-눈의 협응력 및 손을 이용한 활동능력, 정서적 성숙함, 감정조절 및 통제능력, 도덕성, 자기행동조절능력, 사회성, 신체발달, 또래관계형성능력, 리더십 순으로 발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모든 연령 대에서 인지적인 측면이 가장 빠르게 발달하고 있으며, 그 다음으로 정서·신체영역이 발달하고, 사회적인 측면의 발달이 상대적으로 다른 능력의 발달수준에 못 미치고 있음을 나타내고 있었다.



(그림 1) 집단별 유아영재의 발달특성

## 2. 유아영재의 발달특성 간의 차이

영재유아의 발달특성 간에 차이가 있는 알아보기 위해 t검증을 실시한 결과는 <표 3>과 같다. <표 3>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각 발달특성 중 지적능력은 신체발달, 손과 눈의 협응력과 손을 이용한 활동능력, 정서적 성숙, 사회성, 또래관계 형성능력, 도덕성, 리더십, 자기 행동 조절 능력, 감정 조절 및 통제능력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영재유아는 지적능력은 빠르게 발달하지만 그에 비해 신체발달, 손과 눈의 협응력 및 손을 이용한 활동능력이 발달하지 않았으며, 정서적 성숙도 상대적으로 발달하지 않았음을 알 수 있었다. 또한, 사회성, 또래관계 형성능력, 리더십과 자기행동조절 능력, 감정 조절 및 통제 능력도 지적 능력보다는 발달하지 않았음을 알 수 있었다.

< 표 3 > 연령에 따른 유아영재의 발달특성의 차이

발달영역		신체 발달	손-눈의 협응력	지적능력	언어이해, 표현	정서적 성숙	사회성	또래관계형성	도덕성	리더십	자기행동 조절	감정조절 및 통제
신체 발달	유아1											
	유아2											
	유아3											
	전 체											
손-눈의 협응력	유아1	-3.38**										
	유아2	-2.76**										
	유아3	-3.13**										
	전 체	-5.26***										
지적 능력	유아1	-4.02***	-.94									
	유아2	-4.03***	-1.69									
	유아3	-5.14***	-1.66									
	전 체	-7.54***	-2.45*									
언어 이해, 표현	유아1	-4.26***	-1.39	.40								
	유아2	-4.17***	-1.36	.00								
	유아3	-5.95***	-3.07**	-1.83								
	전 체	-8.23***	-3.17**	-1.20								
정서적 성숙	유아1	-3.42**	-.42	1.07	1.14							
	유아2	-2.80**	-.13	1.96	1.71							
	유아3	-3.14**	.14	1.80	2.84**							
	전 체	-5.35***	-.24	2.87**	3.37**							
사회성	유아1	-.21	2.27*	4.10***	3.75**	3.54**						
	유아2	.87	3.80***	5.75***	5.51***	4.30***						
	유아3	-.12	3.32**	4.80***	6.10***	3.42**						
	전 체	.32	5.44***	8.57***	8.88***	6.55***						
또래 관계 형성	유아1	-.43	2.08*	3.55**	3.37**	2.92**	-.53					
	유아2	.74	3.93**	5.78***	5.16***	4.06***	-.26					
	유아3	.51	3.76***	4.74***	6.12***	3.59**	1.35					
	전 체	.49	5.64***	8.19***	8.49***	6.17***	.43					
도덕성	유아1	-2.13*	.50	2.44*	2.01	1.56	-2.49*	-2.03*				
	유아2	-2.01*	.87	2.82**	2.55*	1.24	-3.27**	-3.25**				
	유아3	-3.53**	-.87	.84	1.99	-1.03	-4.32***	-4.51***				
	전 체	-4.43***	.47	3.48**	3.83***	.91	-5.85***	-5.73***				
리더십	유아1	-.65	2.83**	4.32***	5.70**	3.70**	-.42	2.16*				
	유아2	1.44	4.39***	6.46***	6.26***	4.52***	.78	.93	3.58**			
	유아3	1.11	4.38***	6.67***	7.96***	4.44***	1.50	.60	5.29***			
	전 체	-1.21	6.83***	10.20***	11.32***	7.33***	1.07	.79	6.44***			
자기 행동 조절	유아1	-2.35*	-.54	-1.92	-2.18*	-1.19	1.91	1.53	.00	1.58		
	유아2	-.71	-2.15*	-4.64***	-4.27***	-2.78**	1.66	1.54	-1.85	2.05*		
	유아3	-1.95	-1.57	-2.85**	-3.90***	-1.39	2.08*	2.67*	-2.99**	3.21**		
	전 체	-2.70**	-2.51*	-5.52***	-6.10***	-3.18**	3.25**	3.28**	-2.57*	4.16***		
감정 조절, 통제	유아1	-2.03*	-1.21	-2.43*	-2.67*	-1.92	1.59	1.26	-.60	1.98	1.23	
	유아2	.36	-3.63**	-5.91***	-5.33***	-4.10***	.39	.31	-3.60**	.88	2.70**	
	유아3	-1.94	-1.42	-3.06**	-3.91***	-1.27	2.14*	2.68*	-2.71**	3.47**	-.26	
	전 체	-1.80	-3.80***	-6.68***	-7.01***	-4.37***	2.26*	2.40*	-3.83***	3.25**	2.22*	

위의 표에서 살펴볼 때, 언어이해 및 표현능력은 지적능력을 제외한 신체발달, 손-  
 눈의 협응력, 정서적 성숙감, 사회성, 또래관계형성, 도덕성, 리더십, 자기행동조절 능  
 력, 감정 조절 및 통제능력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언어이해 및 표현능력도 지적능력과 마찬가지로 다른 발달영역에 비해 빠르게 발달  
 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연령별로 세 집단으로 나누어 연령에 따라 각 발달특성간의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  
 t검증을 실시한 결과는 <표 3>과 같다. <표 3>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유아 1집단,  
 유아 2집단, 유아 3집단에서 모두 지적능력이 신체발달, 사회성, 또래관계형성능력, 도  
 덕성, 리더십, 감정조절 및 통제능력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  
 타났다. 그리고 지적능력과 자기행동조절능력은 유아 2, 3집단에서만 통계적으로 유  
 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언어이해와 표현능력은 신체발달, 사회성, 또래  
 관계형성능력, 리더십, 자기행동 조절능력, 감정조절 및 통제능력과 통계적으로 유의  
 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지적 능력과 언어이해 및 표현능력과 같은  
 인지적인 발달은 연령에 구분 없이 사회·신체발달 및 감정조절 및 통제능력에 비하  
 여 빠르게 발달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발달특성 중 자기행동조절능력과 신체발달, 감정조절 및 통제능력과 신체발달은 가  
 장 어린 연령대인 유아 1집단에서만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  
 났다. 즉, 연령이 어릴수록 신체발달과 자기행동조절능력, 감정조절 및 통제능력간의  
 발달차이가 더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언어이해와 표현능력과 도덕성, 자기행동조절능력과 감정조절 및 통제능력, 손과  
 눈의 협응력은 자기행동조절능력과 감정 조절 및 통제능력과 유아 2집단에서만 통계  
 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언어이해 및 표현능력은 손과 눈의 협응력과 손을 이용한 활동능력, 정서적 성숙감  
 과 가장 높은 연령대인 유아 3집단에서만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사회성, 또래관계형성능력은 자기행동조절능력, 감정조절 및 통제능력  
 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도덕성은 자기행동조절능력  
 과, 리더십은 감정조절 및 통제능력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  
 났다. 즉, 연령이 높아질수록 언어이해 및 표현능력과 손을 이용한 활동능력간의 발  
 달차이가 더 커짐을 알 수 있었다. 그리고 사회성, 또래관계형성능력과 같은 사회성  
 발달도 자기행동조절과 감정조절 및 통제능력발달 수준에 못 미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또한 감정조절 능력 및 통제능력에 비해 리더십은 발달하지 않고 있었으며,  
 도덕성은 자기행동조절능력 발달수준에 못 미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 IV. 결론 및 제언

지금까지 유아영재의 발달특성의 발달수준과 연령에 따른 발달영역간의 차이를 살펴보고 있으며, 위의 연구결과를 토대로 다음과 같은 논의와 결론을 도출하였다.

첫째, 유아영재들은 모든 발달특성에서의 발달수준을 살펴본 결과, 보통 수준 이상으로 발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러 발달특성 중 언어이해 및 표현능력이 가장 높은 수준으로 발달하고 있었으며, 지적능력, 정서적 성숙함, 손과-눈의 협응력 및 손을 이용한 활동능력, 도덕성, 자기행동조절능력, 감정 조절 및 통제능력, 신체발달, 사회성, 또래관계형성능력, 리더십 순으로 발달하고 있었다. 즉 인지적인 측면이 가장 빠르게 발달하고 있으며, 그 다음으로 정서·신체영역이 발달하고, 사회적인 측면의 발달은 상대적으로 다른 능력의 발달수준에 못 미치고 있음을 나타내고 있다. 이러한 결과는 영재성을 대표하는 특성으로 지적능력 중 풍부한 어휘력과 지식, 정보자료를 기초로 한 언어 이해력 및 표현력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영재아들은 초기에 걷기와 말하기에서 일반아동에 비해서 빠르게 발달하며, 5, 6세 이전에 읽기가 가능하다는 Auzias et al(1977)와 Freeman(1979)의 연구결과와 연관이 있다고 볼 수 있다(Terrassier, 1985).

둘째, 유아영재들의 발달특성간의 발달수준 차이를 비교한 결과, 지적능력은 언어이해 및 표현능력을 제외한 신체발달, 손과 눈의 협응력과 손을 이용한 활동능력, 정서적 성숙함, 사회성, 또래관계형성능력, 리더십, 자기행동조절능력, 감정조절 및 통제능력과 발달정도의 차이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연령에 따라 구분하여 세 집단으로 나누어 발달특성간의 발달수준 차이를 비교한 결과에서도 모든 연령에서 지적능력이 신체발달, 사회성, 또래관계형성능력, 리더십, 감정조절 및 통제능력에 비하여 빠르게 발달하고 있었다. 그리고 가장 연령이 어린 유아 1집단에서는 도덕성의 발달이 지적능력의 발달에 못 미치는수준이었으며, 유아 2집단에서는 자기행동조절 능력이 지적능력의 발달수준에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언어이해 및 표현능력은 모든 연령에서 공통적으로 신체발달, 사회성, 또래관계형성능력, 도덕성, 리더십, 감정조절 및 통제능력과 발달수준에 차이를 보였으며, 더 빠르게 발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가장 높은 연령대인 유아 3집단에서는 언어이해 및 표현능력이 손과 눈의 협응력과 손을 이용한 활동능력, 정서적 성숙감과 발달수준에 차이를 보였으며, 사회성 또래관계형성, 도덕성, 리더십과 같은 사회적인 발달도 자기행동조절능력, 감정 조절 및 통제능력과 발달적인 차이를 보였다. 이러한 결과는 연령이 높아질수록 언어적인 이해 및 표현능력과 소근육 운동발달과 정서적 성숙간의 차이뿐만 아니라 사회적인 발달과 자기행동 및 감정조절·통제능력간의 차이가 더 커짐을 알 수 있었다. 즉, 연령이 어릴수록 높은 인지적 능력으로 인한

보상 때문에 소근육 발달과 정서적 성숙간의 차이가 크게 나타나지 않았지만 연령이 높아질수록 과제수준도 높아지고 요구되는 사회적 기대감이 변화되고 정서적 성숙함 또한 많이 요구되기 때문에 그 차이가 더 부각되었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영재유아는 인지적 측면, 즉 지적 기능이 다른 정서·사회 및 신체 영역에 비하여 빠르게 발달하기 때문에 소근육 운동발달이 뒤쳐지거나 판단력이나 정서적 성숙이 지적 수준에 못 미치게 된다는 Webb(1993)의 연구결과와 영재아동에게는 지적, 신체적, 사회적, 정서적인 성장이 동시에 이루어지지 않고 서로 다른 발달 수준으로 서로 다른 속도로 발달하는 비동시성이 나타난다고 한 Terrassier(1985)의 결과와 일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 나타난 결과를 기초로 하여 후속연구를 위한 제언을 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유아영재들은 인지적인 특성은 다른 또래 집단보다 더 빠르게 발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유아영재들의 지적인 욕구를 충족시켜 주고 교육하기 위해서는 이 시기에 아동과 함께 생활하는 기간이 누구보다도 많고 정서적 유대가 강하여 이들의 행동을 다양한 상황에서 세밀히 관찰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부모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하겠다. 그러므로 유아영재들의 발달적인 특성을 이해하여 그들을 올바르게 지도하고 교육하기 위한 부모를 위한 교육 프로그램이 개발되어야 하겠다.

둘째, 영재아동들은 언어이해 및 표현능력과 지적능력과 같은 인지적인 측면은 더 빠르게 발달되고 있지만 그에 비해 사회, 정서, 신체적인 측면이 따라주지 못하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발달특성간의 수준차이로 인하여 비동시적인 발달을 보이는 유아영재들은 또래와의 어울림, 부모와의 관계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취학 후에는 과제가 복잡해지고, 책임감과 자기-통제력도 더 많이 요구되며, 독립적인 작업이 늘기 때문에 학교에서의 적응, 교사와의 관계에서 더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본 연구 유아영재를 대상으로 한 발달영역간의 수준을 살펴보았지만, 앞으로는 유아기, 아동기, 청소년기의 영재를 대상으로 하여 그들의 발달적인 변화와 발달영역간의 차이를 살펴보고, 그들이 처한 상황에 따른 체계적인 프로그램이 개발되어야 하겠다. 또한 아동 개인의 특성과 학습 속도에 맞는 개별화 교육을 어려서부터 집중적이며 계속적으로 제공하여야 하겠다.

셋째, 본 연구에서는 현재 영재교육을 받고 있는 유아영재를 대상으로 하여 그들의 발달수준을 살펴보았지만, 후속연구에서는 비영재 집단과 발달특성의 차이를 비교하여 영재아동들의 발달특성 및 변화를 좀 더 심층적으로 파악하여야 하겠다.

넷째, 부모는 아이들의 행동을 다양한 상황에서 세밀히 관찰할 수 있는 위치에 있기 때문에 영재의 특성을 누구보다도 더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지만, 때로는 자신의 자녀를 주관적으로 평가하는 경향도 있으므로 부모뿐만 아니라 교사, 전문가, 아동

자신의 평가가 함께 이루어져야 하겠다.

본 연구는 여러 가지 제한점에도 불구하고, 유아 단계의 영재아동을 대상으로 하여 그들의 발달특성을 고려한 교육 프로그램뿐만 아니라, 영재아동이 여러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는 부모와 교사들에게 기초 자료가 되었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있다.

### <참고 문헌>

- 김언주(2001). 영재의 판별과 선발. *영재교육연구*, 11(3), 63-74
- 윤여홍(1996). 영재아동의 정서적 특성에 관한 임상연구 : 정신건강을 위한 지도. *영재교육연구*, 6(1), 53-71.
- 윤여홍(2002). 부모의 지각에 의한 유아 영재의 발달 특성의 변화. *영재교육연구*, 12(2), 1-15.
- 조석희, 오영주, 임선하(1996). 조기 진급 및 졸업제의 이론과 실제. 서울특별시 교육청.
- Baum, S. M., Olenchak, F. R., & Owen, S. V. (1998). Gifted Students with Attention Deficits: Fact and/or Fiction? *Gifted Child Quarterly*, 42(2), 96-104.
- Clark, B. (2002). *Growing up gifted* (6th ed). Merrill, Prenticehall.
- Gorden, N. (1990). The assessment and treatment of ADHD/Hyperactivity. Keynote address annual meeting of New York Association for Children with Learning Disabilities, Syracuse., New York.
- Hollingworth, L. S. (1942). *Children above 180 IQ Stanford-Binet*. New York: Macmillan.
- Lewis, M., & Louis, B. (1991). Young gifted children. In N. Colangelo and G. A. Davis(Eds.), *Handbook of gifted education*(pp. 365-381). Allyn & Bacon.
- Martinson, R. A. (1961). *Educational programs of gifted pupils*, Sacramento, Calif: State Department of Education.
- Morelock, M. J. (1996). On the nature of giftedness and talent : Imposing order of chaos. *Roeper Review*, 19(1), 4-12.
- Renzulli, J. S. & Reis, S. M. (2000). *The schoolwide enrichment model: a how-to guidebook for n for educational excellence*. Mansfield Center, CT: Creative Learning Press.
- Silverman, L. K. (1993). Counseling needs and programs for the gifted. In K. A. Heller, F. J. Monks, & A. H. Passow (Eds.), *International handbook of*

- research and development of giftedness and talent*(pp. 631-647). New York: Pergamon.
- Silverman, L. K. (1995). The universal experience of being out-of-sync. Keynote address for the 11th World Conference on Gifted and Talented Children. Hong Kong.
- Terman, L. M., & Oden, M. H. (1947). The gifted child grow up: Twenty-five years' follow-up of a superior group. *Genetic studies of genius., Vol. 4*. Stanford: Stanford University Press.
- Terrassier, J. C. (1985). Dyssnchrony-uneven development. In J. Freeman (Ed), *The Psychology of gifted children*(pp. 265-274). John Wiley & Sons.
- Tuttler, F. B. & Becker, L. R. (1983). Characteristics and identification of Gift Students (2nded). Washington D. C. : nea.
- Webb, J. T. (1993). Nurturing social-emotional development of gifted children. In K. A. Heller, F. J. Monks, & A. H. Passow (Eds.), *International handbook of research and development of giftedness and talent*(pp. 525-538). New York: Pergamon.

## Abstract

### Asynchronous development of young gifted children by parents' perception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the Asynchronous development of young gifted children by parents' perception. Total 3 groups of 145 subjects from age 30 months to 6 years 10 months old young gifted children's parents participated.

The major findings were as follows : (1) The mean developmental characteristics was at a high average level. The developmental subscales tended to be high. The level of verbal understanding/expression tended to be high. It reared as followed ; intellectual capacity, emotional maturity, visual-motor coordination, morality, self-behavior control, emotion control, physical development, social development, peer relationship, leadership ability.

(2) There were significant differences between intellectual capacity, verbal understanding /expression and physical, social development, self-behavior control, emotion control. There were significant differences between physical development, self-behavior control and emotion control as children got lower. There were significant differences between verbal understanding/expression and visual-motor coordination as children got older. There were significant differences between social development, peer relationship and self-behavior control, emotion control as children got older. Also, there were significant differences between leadership ability and self-behavior control, emotion control as children got older. There were significant differences between morality and self-behavior control as children got older. These findings suggested that young gifted children were in the special needs because of the developmental differences,

key word : asynchronous development, giftedness, parents' perception.